

2023. 2. 22

해외동향부 (제 6448)

■ 주요 뉴스: 미국 주가, 연초 이후 최대폭 하락. 금리인상 지속 전망. 기업실적 부진 등이 영향

- 미국 및 유로존 2월 S&P Global 종합 PMI, 상승세 지속. 서비스 부문이 호조
- ECB 총재, 3월에 0.50%p 인상 가능. 이후에는 경제지표에 따라 통화정책 결정
- 중국 공산당, 금년 경제 및 사회발전 목표 달성 의지를 강조

■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

주가 하락[-2.0%], 달러화 강세[+0.3%], 금리 상승[+14bp]

- 주가: 미국 S&P500 지수는 국채금리 급등 및 일부 기업실적 부진 우려 등에 기인
유로 Stoxx600 지수는 지정학적 긴장, 기술주 약세 등으로 0.2% 하락
- 환율: 달러화지수는 2월 종합 PMI 등 양호한 경제지표 등이 영향
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.4%, 0.6% 하락
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금리인상 지속 예상 등으로 3개월래 최고 수준
독일은 미국 국채시장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6bp 상승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304.6원, +8.7원) 0.8% 상승, 한국 CDS 상승

		2/21일	2/20일	전일대비			2/21일	2/20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3,997.3	휴장	-2.00%	국채 금리 10y	미국	3.95%	휴장	14bp
	유럽	463.77	464.64	-0.19%		독일	2.53%	2.46%	6bp
	중국	3,306.5	3,290.3	0.49%		영국	3.61%	3.47%	6bp
	일본	27,473	27,532	-0.21%		CDS 5y	한국	46bp	43bp
	한국	2,459.0	2,455.1	0.16%			중국	73bp	65bp
환율	달러지수	104.20	103.88	0.33%	위험 지표	EMBI+	-	393	-
	유로화	1.0648	1.0686	-0.36%		VIX	22.87	휴장	0.12%
	엔화	135.01	134.25	-0.56%		WTI유	76.16	휴장	-0.24%
	위안화	6.8795	6.8552	-0.35%		원자재	구리	421.5	417.9
	원화	1,295.9	1,294.5	-0.11%			금	1,835.1	1,841.4
									-0.34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주가, 연초 이후 최대폭 하락. 금리인상 지속 전망·기업실적 부진 등이 영향

- 2/21일 S&P500 지수는 전일비 큰 폭 하락(3997.3 -2.0%). 이번 급락은 연준의 최종금리 수준이 당초 예상보다 상향되고 금리인상 기간 역시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 등에 기인. 특히 이러한 영향으로 이날 10년물 국채금리는 작년 11월 초 이후 최고치(3.95% +14bp) 기록
- 작년 말 이후 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었으나 최근 소비자물가, 고용, 소매판매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시장 전망보다 양호한 것으로 연이어 확인되면서 연준의 인플레이션 제어를 위한 노력 역시 강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
- 아울러 기업실적 악화 역시 주가 하락을 초래한 또 다른 요인. Home Depot는 작년 4/4분기 수익이 358억달러를 나타내 '19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시장 전망치를 하회. 또한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이 향후 이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부각
- 연준이 금리인상 중단에 나설 때까지 증시의 높은 변동성은 멈추지 않을 전망(Hargreaves Landdown). 최근 JPMorgan은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 기대가 과도하다면서 S&P500 지수가 3/8일 기준 3800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고, BofA는 상반기 내에 300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및 유로존 2월 S&P Global 종합 PMI, 상승세 지속. 서비스 부문이 호조

- 미국의 2월 S&P Global 종합 PMI는 50.2를 기록하여 8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했고, 유로존 종합 PMI는 52.3을 나타내 9개월 만에 최고 수준. 미국과 유로존 모두 서비스 PMI가 전월비 큰 폭 상승(각각 46.8→50.5, 50.8→53.0). 제조업 PMI는 각각 소폭 상승(46.9→47.8) 혹은 소폭 하락(48.8→48.5) 기록
- 미국은 세부항목 가운데 임금상승세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이는 향후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및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
- 유로존은 이번 결과로 1/4분기 경기침체 회피 기대가 증가. 다만 인플레이션과 금융긴축 등으로 금년 성장률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전망(Oxford Economics)

■ 미국 바이든 대통령, 우크라이나 지원은 불변. 러시아는 핵군축조약 참여 중단

-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변함이 없으며, 북대서양조약기구(NATO)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강조. 반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맺은 핵군축조약 '신전략무기감축협정(New START)'의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발표

■ ECB 총재, 3월에 0.50%p 인상 가능. 이후에는 경제지표에 따라 통화정책 결정

- 라가르드 총재는 이전에 밝힌 것처럼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다음 달 0.50%p 인상에 나설 수 있음을 재확인. 다만 이후에는 인플레이션, 노동 비용, 경제 전망 등이 향후 통화정책 경로를 좌우할 것이라고 설명

■ 독일 2월 ZEW 경기기대지수, 5개월 연속 상승. 에너지 부문의 긍정적 전망 등이 반영

- 2월 ZEW 경기기대지수는 28.1을 기록하여 전월(16.9) 및 예상치(22.0) 상회. 이번 결과는 이전과 동일하게 긍정적인 에너지 및 수출 부문 전망 등이 영향. 한편 경제현황지수 역시 전월비 상승(-58.6→-45.1)

■ 중국 공산당, 금년 경제 및 사회발전 목표 달성 의지를 강조

-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경제의 질적 개선을 이루고 양적인 측면에서도 적절한 수준에서 성장시킬 것이라고 밝히고, 계속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 및 적절한 수준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

■ 일본, 5년물 국채금리는 차기 일본은행 총재 청문회 앞두고 1개월래 최고

- 2/21일 5년물 국채금리는 0.236%(+2bp)를 나타내 1/18일 이후 최고치. 우에다 차기 일본은행 총재 지명자는 통화정책 관련 특별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수익률곡선제어(YCC) 조정을 기대(T&D Asset Management)

■ 호주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의사록,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로 금리인상 지속 필요

- 공개된 2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에 따르면, 통화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어 추가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2/22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2월 FOMC 의사록 공개 및 뉴욕 연은 윌리엄스 총재 강연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채권 투자자, 미국 국채의 채무불이행 가능성 낮지만 익스포저를 축소 - Reuters

(Looming U.S. default risk prompts investors to cut some debt exposure)

- 채권 투자자들은 미국 국채의 채무불이행 현실화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. 하지만 부채규모가 법적 한도에 도달한 가운데 의회의 합의가 지연되고 세입이 채무를 상환할 수준에 못 미칠 경우 결국 채무불이행은 발생
- 채권 투자자들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최근 조심스럽게 미국 국채 비중을 축소. 일례로 골드만삭스의 자산운용부서는 정치적 교착에 따른 영향을 피하기 위해 미국 국채에 대한 익스포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
- 과거에도 수차례 미국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제기되었으나 실제로 발생한 경우는 전무. 하지만 추후 의회 협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연준의 추가 긴축 가능성이 고조될 경우 시장 혼란은 더욱 확대될 소지

■ 유럽 금융시장, 주요 관심이 에너지 위기에서 금리인상 강화로 이동할 가능성 - WSJ

(Russia's Bear Hug Fades, but Europe Faces Rate Squeeze)

- 유럽은 그 동안 부각되었던 에너지 위기 우려가 크게 완화되는 가운데 2월 S&P Global PMI가 9개월래 최고치 기록. 특히 공급망 개선이 지속되고 있으며 신규수주는 작년 5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. 이러한 긍정적 경제여건 등을 반영하여 작년 10월 이후 유로존 주가(Euro Stoxx 50)의 상승률은 미국(S&P500)을 추월
- 그러나 금융시장 관련하여 투자자들이 마음을 놓기에는 시기상조. 유로존의 경제성장 및 에너지 위기 우려가 점차 악화되고 있으나 예상보다 높은 서비스 물가 상승률 등으로 ECB의 통화긴축에 대한 우려가 다시 높아지고 있기 때문. 금리 상승은 향후 유럽의 기업실적 및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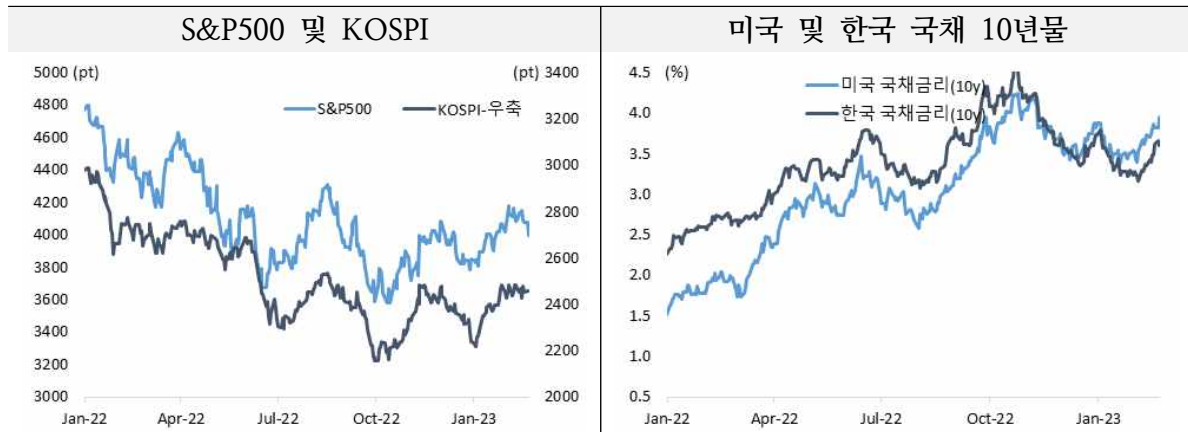
■ 통화공급량과 인플레이션, 여전히 유효한 상관관계가 존재 - Financial Times

(A neglected tool of central banks shows its worth)

- 장기간 통화공급량은 주요국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예측 수단에서 소외되었지만, 최근 국제결제은행(BIS)는 통화량과 인플레이션 간 상관관계가 있음을 재확인. 그간 통화주의자 논거(통화량과 물가 관계)가 약화된 이유는 화폐유통속도 변동성이 컸기 때문
- BIS 연구진은 특히 통화공급량과 인플레이션의 상관관계가 저물가보다 고물가 국가에서 연관성이 높다고 지적. 해당 논의는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, 통화공급량은 인플레이션에 여전히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부연

- **미국의 중국 반도체 산업 규제, 지속될 전망, 중국은 효과적 대응이 부족 - Oxford Analytica**
(US chip controls on China will be an ongoing battle)
 -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수출 통제로 중국의 첨단기술 접근이 제약되고 있는 가운데 수년간 동 분야에서 중국이 수입 대체선을 확보하는데 난항을 겪을 전망
 - 중국은 전기·전자 산업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효과적인 대응책을 찾고 있으나 현재까지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. 또한 여타 산업에서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게 상응하는 보복에 나서기도 어려운 여건
 - 향후 중국의 반도체 수입 공급선 확보 노력이 더욱 배가될 것으로 추정되나, 단기간 내에 큰 성과를 보일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
- **러시아, 경제적 난관 불구 전쟁지속 여력 보유한 것으로 판단 - Financial Times**
(How long can Russia keep fighting the war in Ukraine?)
- **중국, 러시아에 무기지원 시 미·중 관계 악화 및 전쟁 장기화 초래할 소지 - WSJ**
(China, Russia and the U.S. 'Red Line' on Ukraine)
- **G20의 저소득국가 부채조정 노력, 미·중 갈등 등이 저해 요인 - 블룸버그**
(US-China Standoff Hits G-20 Effort to Revamp Poor Nations' Debt)
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